제6실 | 서적 | 고금목록초와 로에이요슈

N-18 고금목록초

쇼토쿠 태자에 관한 전기나 호류지에 관한 기록을 적은 것으로, 일명「쇼토쿠태자전사기」라고도 합니다. 13세기 전반에 호류지 승려인 겐신이 상하 2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권은 스승인 다카노리로부터 전수 받은 호류지와 쇼토쿠태자의 비전(祕傳)을 기록하였고, 하권에서는 쇼토쿠 태자의 도네리(황족과 귀족을 시중들던 직책)인 조시마로의 전기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신이 조시마로의 직계 자손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 겐신이 직접 가필하고 수정한 흔적이 있습니다.

N-20 로에이요슈

후지와라 노 긴토의 『와칸로에이요슈』과 후지와라 노 모토토시의 『신센로에이슈』 등에서 70수의 시가를 발췌해 수록한 것입니다. 한자와 가타카나를 섞어 일본어 어순으로 풀이하고 각 행의 오른편에 옅은 먹으로 곡절을 더했습니다. 끝부분의 간기를 통해 1292년 3월에 쇼겐이 린코에게 전달한 악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6실 | 염직 | 광동 능직비단 번과 다채로운 번족

염직 코너에서는 광동 능직비단 번 조각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색으로 염색된 번족을 전시합니다. 이 작품들을 통하여 고대 사원을 장식했던 풍성한 색채의 세계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N-304-1: 광동 능직비단 조각

고대 호류지에서 행해진 불교 의식에서 사용한 번입니다. 번은 의식이 열리는 장소를 장식하는 깃발을 말하며, 주로 불당 안팎에 걸었습니다. 이 작품의 첫 번째 평(직사각형 구획)에 날실을 사용한 가스리(미리 염색해 둔 실을 정해둔 무늬에 따라 짜 넣는 기법) 방식으로 제작된 직물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직물을 간톤기레, 즉 광동 비단이라고 부릅니다.

N-308: 평직비단 번 조각

갖가지 색으로 물들인 비단 평직물로 제작한 번의 일부입니다. 번족은 아랫단까지 온전한 길이로 남아 있습니다. 호류지가 보관하고 있는 직물 중에는 일부분만 조각으로 남은 것이 많은데, 이 작품은 원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작품입니다.

N-319-19-1: 짙은 녹색 바탕 한 쌍의 큰 용과 넝쿨, 꽃잎이 네 장인 꽃무늬, 능직비단 번족 조각

비단으로 만들어진 번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번족의 일부입니다. 큰 원무늬 안에 용틀임하는 용을 마주 보게 배치하였고, 원무늬 바깥쪽에 넝쿨무늬와 작은 꽃무늬를 둘렀습니다.

N-319-47-4: 황색 바탕 지그재그무늬 능직비단 번족 조각

황색 바탕에 지그재그로 난 무늬를 직조한 능직비단 번족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기하학 계통의 무늬는 능직비단의 무늬로서는 단순하고 비교적 간단하게 직조할 수 있기 때문에 호류지에 전해지는 작품 중에서도 제작연도가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N-319-61-3, N-319-97: 적색 바탕 평직비단 번족 조각

눈이 번쩍 뜨일 듯한 선명한 붉은색이 인상적인 번족의 일부입니다. 1,300년 이전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색감이 보존된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N-319-90: 황색 바탕 거북이와 당화가 들어간 거북이 등껍질 무늬 능직비단 번족 조각

거북이 등껍질 무늬 안에 사랑스러운 거북이와 당화(중국에서 유래한 꽃 디자인)무늬를 짜서 넣었습니다. 중국 산둥성 용흥사 터에서 출토된 보살상의 일부(6세기 후반)에서 거북이 등껍질 무늬에 거북이를 넣은 무늬가 확인됩니다.

N-319-100-1, N-319-129-2: 감색 바탕 평직비단 번족 조각

짙은 감색으로 염색된 번족의 조각입니다. 호류지에 전해오는 염직물은 색의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아서 지금 보아도 바로 어제 염색한 것 같은 색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N-319-114-2: 담홍색 바탕 거북이 등껍질 무늬 능직비단 번족 조각

여러 겹으로 된 거북이 등껍질 모양을 이어 놓은 무늬의 능직비단입니다. 현재는 옅은 갈색으로 변했지만, 원래는 담홍색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